

OVERWATCH 2

HEROES ASCENDANT

방황하는 유령



MOHALE MASHIGO 단편 소설

이야기
MOHALE MASHIGO

그림
BORG SINABAN

편집
CHLOE FRABONI

프로듀서
BRIANNE MESSINA, AMBER PROUE-THIBODEAU

디자인
JESSICA RODRIGUEZ

세계관 자문
MADI BUCKINGHAM, IAN LANDA-BEAVERS

게임 팀 자문
*JEFF CHAMBERLAIN, GAVIN JURGENS-FYHRIE,
PETER C. LEE, MIRANDA MOYER, DION ROGERS*

도움 주신 분
IAN LANDA-BEAVERS, MADDIY COOK





분노에 가득 찬 14살 파리하는 팔짱을 낀 채 홀로그램 화면 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아나는 딸 파리하와 몇 주간 대화를 하지 않았는데, 둘 사이의 긴장은 이제 극에 달했다.

“엄마가 그렇게 모질게 말하려던 건 아니었단다, 아가야.”

파리하는 시선을 피했다. “이게 제가 선택한 인생이에요. 제가 결정해요.”

“꿈은 새로 찾으려면 돼, 넌 어리장니.” 아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오버워치에는 왜 들어가려는 거니?”

파리하는 이유를 말했지만 아나는 듣고 있지 않았다. 그저 어머니로서 딸이 더 나은 인생을 살기를 바랐을 뿐. 최소한 딸이 하는 말을 귀담아듣거나, 목소리 톤이 심상치 않음을 알아채기라도 했어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파리하가 유대를 절실히 바란다는 것을.

“옴닉 사태는 끝났잖아.” 아나가 말을 잘랐다. “네가 싸울 필요 없어! 넌 원하는 건 뭐든 이뤄낼 수 있는 아이야. 엄마는 널 위해 모든 걸 쏟았단다.”

다시 논쟁에 불이 붙으면서 파리하의 목소리가 커졌다. 둘은 이후 두 달 동안이나 말을 섞지 않았고, 아나는 딸의 꿈에 대해 다시는 듣지 못했다.

아나는 소총 조준경을 통해 아래에 있는 여인을 바라보았다. 널 섹터 전쟁 로봇에 둘러싸여 난감한 상황이었다. 동글게 땀은 머리에서 붉은 머리칼이 쏟아져 나온 채 해군 복장인 것으로 보아 근무 도중에 공격을 받은 게 틀림없었다. 침공이나 전쟁 같은 폭력 상황에서라면, 일상이 갑자기 멈춘 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전혀 생각할 수 없게 되는 법이다. 여러 가지 생각이 빠르게 지나갔다. 이 빨간 머리는 피신할 곳을 찾기 위해 얼마나 절박하게 도망했던 걸까? 가족과 생이별한 건가? 여느 때처럼 퇴근해서 돌볼 생각에 애완동물을 집에 두고 나왔을까? 집이 파괴되고 가족을 잃었나?

절대 주저하지 말고 절대로 외면하지 말라. 너무 오래되어 언제 들었는지도 잊어버린 전투 수칙.

잭은 그늘에서 그늘로 이동해 반파된 지역을 점령하자고 말했다. 그래서 건물 사이를 이동하던 중 아나의 눈에 5층 창문 너머에 있는 빨간 머리가 들어온 것이었다. 아래에 있던 맨발의 여인은 싸울 의사가 없다는 듯 양손을 올리고 있었다. 너무도 익숙한 광경이었다.

평화가 오긴 할까? 부서진 유리 조각이 가득한 곳에서 몸을 낮추고 있던 아나는 거리의 전쟁 로봇을 처치하면서 생각했다. 총성이 울리자 공포에 질려 있던 빨간 머리 여인은 깜짝 놀라 황급히 달아나며, 두려움에 차 원초적인 비명을 질렀다. 전장에서 처음 듣고 아나가 밤잠을 설치게 했던, 그런 비명을.

절대 주저하지 말고 절대로 외면하지 말라. 너무 오래되어 언제 들었는지도 잊어버린 전투 수칙. 아나는 빨간 머리가 두 건물 사이로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않았다. 잭이 아나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제 괜찮을 거야. 가자고.”

빨간 머리 여자 얘기란 것은 알고 있었지만, 아나의 머릿속에는 파리하가 떠올랐다. 카이로에서 잠시 딸과 재회한 후 딸에 대한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내심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폐허가 된 식당을 지나던 둘에게 한 줄기 서광이 보였다. 식당에서 아직 연기가 피어나는 가운데 조명이 깜빡이고 있던 것이다. 하지만 아나는 식당이나 잭보다는 누가 따라붙지는 않았는지에 집중하고 있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팀을 엄호해야 한다. 오랜 수칙이다.

“저것 좀 봐.” 잭이 벽에 있는 큰 균열을 가리키며 통명스럽게 말했다.

틈새 너머로 부엌이 보였다. 아침 식사를 준비 중이었나 보다. 계란판은 뒤집어진 채 깨진 계란이 말라 있었다. 주걱 하나가 프라이팬 위에 중심을 잡고 있었고, 탁자와 카운터에는 깨진 그릇 조각이 흩어져 있었다. 바에는 홀로비디오로 뉴스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경관을 보면 부산이었는데, 화면 아래 지나가는 글귀에는 공격 초기 시점인 얼마 전 영상이라고 써 있었다. 기자는 한국어로 말하고 있었지만, 오버워치라는 단어는 명확하게 들렸다.

이것 보게! 화면 뒤로 캐서디의 모자가 지나가자 아나는 웃음을 참았다. 해냈군. 내가 뿌려둔 빵 조각을 따라왔어. 캐서디가 이끄는 신참 요원 팀이 대한민국 군대와 함께 싸우며 널 섹터를 밀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드론이 보내온 영상은 흔들리다가, 로켓 런처를 든 한 여인이 화면 왼쪽 하단에 등장하면서 끊기고 말았다.

파리하!

모든 상황이 그냥 농담 같았다. ‘둘이 살다가 하나가 죽은 도시로 두 유령 이 돌아갔는데 말이지...’ 아나가 유머 감각이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지금 상황은 과거를 쫓는 영혼이라는 점에서 꼭 블랙코미디 같았다.

“파리하는 무사하군. 잘했어.” 잭이 아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힘든 일을 계속하느라 좀처럼 웃음을 보이지 않던 그가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영상이 아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딸이 승기를 잡고 팀과 합류하는 모습을 꿈꾸던 아나는 계속 영상을 보고 싶었다.

팀. 둘에게도 한때 팀이 있었고, 단체 생활이 어떤 것인지, 개인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의견을 모으고 신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칼춤과 칼싸움 사이의 미묘한 경계라고나 할까? 이런 복잡 미묘한 첫 소리는 윈스턴이 좋아했는데...

추억이 후회라는 감정으로 흘러가자 아나는 머리를 가로저으며 털어 버렸다. 둘이 수행하는 임무를 영웅심의 발로로 오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나는 그게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아나는 오버워치의 대위 출신이었고 잭은 강습 사령관 출신이라 요원 모집 포스터, 아이들이 보는 만화 등에 얼굴이 실릴 정도였다. 오버워치가 구조한 사람들이 보낸 편지가 산처럼 쌓이기도 했다. 둘은 옴닉 사태를 겪으며 사람들을 보호했고, 목숨까지 내놓으며 대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항상 부족했다. 세상은 여전히 망가진 채였고, 매번 새 영웅이 필요했다. 둘이 이룩한 모든 것은 자신들의 손에, 탈론의 손에, 아니면 완전히 다른 누군가의 손에 매번 무너져버리고 말았다.

이제 잭과 아나는 싸울 수 있는 지역에서 싸우고 변화시킬 수 있는 곳에서 변화를 일으킬 뿐이지, 선의 때문에 움직이지는 않는다. 둘을 움직인 것은 잭의 경우 복수심이었고, 아나의 경우에는 오랜 친구에 대한 연민 때문이었다. 잭은 오버워치를 몰락시킨 장본인을 곧 찾아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아나는 그런 잭을 돕고 있었다. 잭이 최근 접선 중인 새로운 정보원이 하나 있었는데, 양질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다 자신이 가진 정보를 보증하는 의미에서 더 큰 뭔가를 알려주겠다고도 약속했다. 바로 그 정보원 때문에 둘은 몇 년 만에 취리히로 돌아온 것이다.

모든 상황이 그냥 농담 같았다. ‘둘이 살다가 하나가 죽은 도시로 두 유령이 돌아갔는데 말이지...’ 아나가 유머 감각이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지금 상황은 과거를 쫓는 영혼이라는 점에서 꼭 블랙코미디 같았다. 수

년간 취리히에서 복무했지만, 도시가 집처럼 느껴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집은 언제나 카이로였다. 어머니와 파리하, (생전의) 샘이 묵묵히 아나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려 주던 곳. 아나는 항상 돌아갔다. 본인의 수칙을 깨고 망설였던 날을 빼고는. 그 날, 아나가 신뢰하기도 하고 수차례 목숨을 구해주었던 탈론 저격수 아멜리가 폴란드에서 아나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던 바로 그 날. 탄환은 적중했고, 아나는 수년간 다른 이름으로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병석에 누워 있던 사이, 아나라는 요원은 영웅적인 죽음을 맞아 오버워치가 몰락할 때 비난을 피할 수 있었다.

잭은 달랐다. 그는 오버워치 스위스 본부가 불타오르고, 국제 평화 유지군을 꿈꾸던 가브리엘 아다위의 꿈이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까지 자리를 지켰다.

잭은 아나 같은 사람을 방황하는 유령이라 불렀다. 이제 유령도 아닌데 말이다. 콜, 파리하, 게이브는 아나가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탈론도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거야. 그러지 않고서야 왜 우리를 카이로, 이스탄불, 부다페스트까지 추적했겠어...*

잭과 아나 사이 계속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아나가 진작에 답을 들었어야 할 질문을 던지며 정적을 깼다. 잭은 완고했다. 그런 사람이었다.

“오늘 밤엔 뭘 할 예정이지?” 아나는 침을 꿀꺽 삼켰다. 잭의 표정에서 별로 유쾌하지 않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사실을 읽었기에. 둘은 생각하는 게 비슷했다.

“정보원 말로는 탈론이 누군가를 제거하려 한다.”

날이 점점 어두워지는 가운데 아나가 눈을 찌푸리며 잭을 바라보았다. “누굴?”

“모르겠어. 가서 시간과 장소를 알아내야지.”

“잭.” 아나가 걸음을 멈추었고, 잭은 몇 걸음 더 앞서가서 몸을 돌렸다. 아나도 완고하려면 완고할 수 있었다. “계획을 말해주지 않으면 도와줄 수 없어. 나는 네 편이잖아?”

잭은 분노와 고통을 늘 품고 다녔고, 아나는 그의 상처가 치유하기 힘들 만큼 깊다고 느끼기도 했다. 아나는 항상 잭의 등 뒤를 든든히 지키며, 기운을 북돋고 집중할 수 있게 했다. 그를 아주 아꼈으니까. 수십 년의 우정 때문이기도 했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희생을 지켜봤기 때문이기도 했으나, 오버워치가 준 기쁨과 안도감을 공유했기도 때문이었다. 세상 사람들은 오버워치를 보며 영웅을 기억하지만, 아나와 잭은 캐서디의 장난, 미렘베 출산 축하, 싱 어머니의 요리, 비비안 체이스의 썰렁한 농담을 기억한다. 둘은 함께한 내내 신뢰, 연대와 이해심을 잃은 적이 없었다. 잭은 오버워치, 둘의 옛 오버워치를 몰락시킨 게 누구 짓인지 밝히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결의에 찬 모습은 보기 좋았지만, 노련한 군인조차도 분노 때문에 부주의해지는 것이다.

“정보원이 이름은 말하지 않았어. 내가 찾을 수 있도록 어딘가에 남겨 뒀을 거야.” 잭이 말을 이어가려 하자 아나가 그만하라는 듯 손을 들어 보였다.

“그럼 매복이 있겠네.” 아나는 버스정류장 잔해에 앉았다. “목적지를 말해주지 않으면 한 걸음도 더 움직일 생각 없어.” 잭의 눈에 장난기가 감돌았다. 주먹에 통증만 없었다면, 아나도 장난스럽게 잭의 어깨를 쳤을 것이다.

“왜 그래, 아나? 낙천적인 모습은 어디 갔어?”

“진정해, 잭.” 아나는 출혈 부위를 찾으며 말했다. “묘지에서 죽을 순 없잖아?”

“20년 전에 네가 하이데라바드에서 그 수상한 케밥을 먹게 한 이후부터는 바뀌었지.”

덕분에 잭이 반쯤 미소를 머금었다.

“극비 정보다.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대신 전달지에 두겠다고 했어.”

아나는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그래서 어딘데?”

“네가 싫어하는 곳이야.”

잭이 옳았다. 아나가 싫어하는 곳이었다. 그는 묘지 바깥에서 이리저리 살피며 열심히 묘실에 쓰인 글귀를 찾았다. 사랑받은 어머니이자, 여동생이었으며, 고양이 애호가였던 마리아가 묻힌 곳에 잭의 정보원이 암호화된 데이터 드라이브를 놓았다고 들었기 때문이었다.

아나는 뒤편 멀리에 있는 언덕 위에서 다른 묘 지봉을 장식하는 가고일에 기대어 조준경으로 잭을 관찰하고 있었다.

잭이 철부지 어린아이처럼 다른 묘로 뛰어가는 동안 아나는 지향 사격 자세로 주위를 훑어보며 생각했다. *이런 걸로 즐거워하다니 웃기는 놈이라니까.* 잭은 마침내 마리아의 묘를 찾았는지 갓돌을 움직이는 순간, 위쪽 거리에서 널 섹터 무리 하나가 잭의 위치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 아나의 시야에 들어왔다. 핏속에 아드레날린이 치솟은 아나는 본능적으로 심호흡을 한 후 침착함을 유지했다. 잭에게 거의 도달한 전쟁 로봇 하나가 날아갔고, 다음은 그 옆에서 공격자를 찾던 로봇도 아나의 공격에 제압되었다. 아나가 세 번째 전쟁 로봇을 향해 방아쇠를 당길 때쯤 네 번째 로봇이 공격을 시작했다.

제기랄. 아나는 고통에 찬 외마디 비명을 이어폰으로 들으며 지봉 경사를 미끄러져 내려갔다. 피투성이가 된 잭이 흘끗 보였다. 그는 묘지 석벽에 힘없이 기대고 있었다. 이렇게 경솔하다니.

아나는 나머지 전쟁 로봇 둘을 해치운 후 엄폐물에서 나와 잭에게 향했다. 마침내 도착한 아나는 가쁜 숨으로 젖은 기침을 요란하게 해대는 잭을 바라보았다.

“진정해, 잭.” 아나는 출혈 부위를 찾으며 말했다. “묘지에서 죽을 순 없잖아?” 잭의 입술에 피 묻은 손을 댄 아나에게 자신의 심장 뛰는 소리가 복소리처럼 울렸다. 잭의 몸에는 찢긴 상처 외에 가슴 부위에 기포가 가득한 출혈이 보였다. 폐에 상처가 난 건가? 군대에서 배우는 기본 응급 처치를 오랫동안 해왔던 아나는 부상병을 숨긴 후 출혈을 멎게 하고, 의식을 잃지 않도록 도운 후 의무호송팀을 기다리라는 지침을 알고 있

었다. 아나가 상처에 나노 항생제를 주사하자 잭이 비명을 질렀다. 사실 잭은 아나가 아는 그 누구보다도(게 이브 빼고) 치유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응급처치를 받는 데 익숙하지 않았다.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항상 위험에 정면으로 뛰어드는 건지도 모르지. 아나는 잭의 가슴에 난 상처를 바라보며 낫는 데 얼마나 걸릴지 생각해 보았다. 상처에 거즈를 대고 누른 채.

둘은 마리아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아 침묵을 지켰다. 거의 한 시간은 되는 침묵이었다. 이내 잭의 숨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아나는 배낭에서 보온병을 꺼내 건넸고, 뚜껑을 연 잭은 한 번 냄새를 맡은 뒤 아나가 고집스럽게 가져온 차를 꿀꺽꿀꺽 마셨다.

“사람 긴장시키네. 그래서 목숨 걸고 얻은 정보는 뭐야?”

“주소와 시간.”

“믿을 만한 거야?”

“지금까지는 그랬지. 얼른 해치우자고. 암살을 막아야지.” 잭이 몸을 일으키려 했다.

아나는 선 채로 손을 내밀었다. 잭은 아직 통증이 있는 왼쪽 옆구리를 부여잡고 있었다. 천천히 하라는 말을 하려 했지만, 대신 질문을 던졌다. “다 끝나면 뭘 할 생각이야?”

잭은 시선을 떨궜다. “우린 군인이야, 아나. 전쟁이 끝나는 것 봤어?”

7살이었던 파리하의 목소리는 암호화된 영상 통화 기기 너머로 떨리고 있었다. “집에 오면 안 돼요? 무서워 죽겠어요, 엄마.”

하지만 아나는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일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인물이었다.

몇 주 연속으로 옴닉이 공격을 퍼부은 후에는 기계들이 재편성을 하는지 조용한 밤이 찾아오곤 했다. 그런 밤이면 아나는 눈을 감고 지금 상황이 부적격자들이 단체로 캠핑을 온 것이라 상상하곤 했다. 가브리엘은 전투에 너무 익숙해져 ‘조용한’ 밤을 전혀 조용하지 않게 보내는 타격팀을 ‘아드레날린 수용체가 닳아 없어졌다’고 말하곤 했다.

“그렇지 않길 바라야지.” 라인하르트가 답했다. “우리 저격수는 집중하는 데 아드레날린이 필요하니.”

아나는 스톨테케 천막 안에서 몸을 웅크렸다. 당시에 이 천막은 토르비욘이 가져온 혁신적인 발명품 중 하나였는데, 휴대성도 좋고 전투도 버틸 수 있을 만큼 튼튼했지만 부피도 크지 않았다. 예테보리 기술자라면 누구나 탐낼 법한 물건이었다.

아나가 지나갈 때 잭은 팔 굽혀 펴기를 하고 있었다. 아직 작전 계획이 다 서지 않았던 참이다. “지금 팔 굽혀 펴기 500개째라고 파리하에게 전해줘.”

아나는 빙그레 웃었다. “귀신을 속이지.”

파리하가 그다지 얘기를 하고 싶은 기분이 아닌 것 같아, 아나는 잭의 팔 굽혀 펴기 얘기를 해주었다. “아저씨는 왜 맨날 팔 굽혀 펴기 해요?” 파리하는 입을 가리고 키득거렸다. 하지만 폭발 소리에 파리하의 즐거운 표정은 싹 사라졌다. 족히 1km는 떨어진 곳에서 들려온 소리였다. 영상 통화를 할 때 상처를 숨기고 조

딸이 잠들지 못하면 아나도 잠들 수 없었다. 파리하가 평화로운 세상에서 잠들 수 있을 때까지 쉴 수는 없었다.

명을 조정할 수는 있었지만, 전투 소리는 쉽게 숨길 수 없었다. “무슨 소리에요?”

“그냥 폭발하는 소리...”

“옴닉이에요, 엄마? 엄마 위험해요?”

거짓말로 둘러댈 수도 있었겠지만, 그랬다면 파리하가 바로 눈치챈 것이다.

가브리엘이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천막으로 뛰어들어왔다. “소규모 팀으로 가볼게. 여기 있어. 금방 돌아올 거야. 동지 잃은 패잔병 무리겠지.”

파리하는 어머니의 표정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누구예요?”

“가브리엘이야.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영리한 파리하는 매번 누구도 답하기 싫어할 추궁식 질문을 던지는 게 습관이었다.

“옴닉 놈들은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소리로 존재감을 드러내.” 공포감을 이용하는 것은 훌륭한 전략이다. 공포는 의심을 부르고, 의심하는 적은 쉬운 상대가 되니까. 아나가 처음 전투에 임했을 때는 며칠간 잠을 자지 않았다. 다른 요원들은 쉽게 잠들었지만 아나는 공포심을 잠재우는 방법을 스스로 알아내야 했고, 거의 2주가 되어서야 답을 찾을 수 있었다.

“파리하, 폭발 소리 또 들렸니?”

아나의 딸은 움크린 다리를 꼭 안은 채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다.

“폭발 소리가 들려온 주기가 아주 중요해. 옴닉의 수와 거리를 짐작할 수 있거든. 적어도 엄마는 그렇게 공격 방식을 알아낸단다.”

“천둥처럼요?”

아나는 딸이 바로 이해할 줄 알고 있었다.

“맞아.”

파리하의 긴장된 어깨에서 힘이 조금 빠지긴 했지만, 아나는 틀림없이 딸이 또 질문을 던질 거라 생각했다.

“옴닉은 여기에 있는 우리도 공격할까요?”

어떻게 통화를 끝냈는지 아나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다만 바로 이 순간, 아나는 딸이 다시는 그런 공포심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가브리엘은 아나가 기지에서 나와 자신이 이끄는 야간 습격조에 합류했다는 말을 듣고 놀랐다. 딸이 잠들지 못하면 아나도 잠들 수 없었다. 파리하가 평화로운 세상에서 잠들 수 있을 때까지 쉴 수는 없었다.

목적지 근처에 다다르니 해는 이미 한참 전에 진 뒤였다. 도시에서도, 비밀 정보가 있던 묘지와도 멀었다. 아나와 잭이 당도한 곳은 널 섹터 침공이 아직 미치지 못한 교외 지역으로, 주민들은 자택 대기 중이었다. 또 매복이 있을 것 같은데.

아나가 노려보며 말했다. “마음에 안 드네. 주거 지역이야. 주민들도 많고. 계획은 있어?” 야간 임무를 즐기던 아나였지만 잭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동료가 완전한 브리핑 없이는 작전에 돌입하지 않는 성격인 걸 알면서도 잭은 재보급하고, 휴식을 취하고, 전략까지 세울 시간은 없다고 재촉했다.

“늘 똑같지 뭐. 좋은 위치부터 찾는다.” 잭이 말했다. “따돌릴 탈론 요원이 있나 아래쪽 정찰해볼게. 통신 장비 끄지 말고, 내가 교전하면 엄호해.”

“반쪽짜리 계획은 있군. 그거면 됐어.” 아나는 배낭을 메면서 중얼거린 뒤 뛰기 시작했다.

숲이 우거진 아래 언덕에 부티 나는 현대식 주택이 있었다. 누가 살고 있는 거지? 불이 켜진 방 몇 개에서 따뜻한 조명이 뿜어 나오고 있어서 유리창처럼 보였다. 저격수의 피를 타고나선지는 몰라도, 그런 집에서는 절대 살 수 없었다. 창문은 적더러 어서 오피스, 하고 초대하는 통로나 다름없다는 걸 이미 오래전에 깨달았으니까.

아나는 엄폐 후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유리집에서 40m 거리에 있는 버려진 건물에 진입했다.

“유리집이라고? 아주 쉽겠네. 내가 뭔가 무모한 짓을 저지르거든 빨리 접근하도록 해.” 이어폰을 통해 들려오는 잭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아나는 계단을 뛰어올랐다.

호흡, 집중. 널 섹터 침공, 묘지 매복, 탈론 공격이 하루에 다 일어났다고? 예전 그 시절하고 달라진 건 하나도 없네.

“위치 확보했어? 뭐가 보여?” 잭이 통명스럽게 말했다.

거실의 홀로스크린 앞에는 여자와 아이가 있었다. 아이는 여자의 무릎에서 잠에 든 상태였다. 아나는 숨을 멈추었다. 집중하고. 숨 내쉬고. 침실과 부엌에서는 희미한 노란색 조명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아나의 위치에서 보이는 나머지 방 두 개는 어두웠다.

“잭, 안에 가족이 있어.”

“거의 위치 잡았어. 어디에?”

“거실.”

아나는 열화상 조준경을 켜기도 전에 뜰에서 움직이는 탈론 돌격병을 발견했다. 레이저 조준경을 쓰고 있어서 쉽게 식별할 수 있었다.

절대 주저하지 말고 절대로 외면하지 말라. 아나는 숨을 내쉬 후 조준경으로 나머지 지역을 살폈다.

“3시 방향 돌격병 이동 중. 엄호할게. 들어갈 경로를 찾아봐... 빨리.”

아나는 잭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다른 돌격병 무리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네 앞에 소규모 무리가 또 있어. 10시 방향 여섯 명.”

“알았어.” 잭이 말을 마치자 총성이 작게 들려왔다.

빠르게 적을 탐색하면서 잭이 발사한 탄환 개수를 세던 아나는 부엌 창문 근처에 있던 잭의 귓가에 접이

찍힌 것을 발견했다.

“숙여!”

잭은 재빨리 몸을 숙인 후 화분 뒤로 굴러 이동했다. 잭이 서 있던 곳 뒤로 몇 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탈론 돌격병 하나가 쓰러졌다. *방어구는 뭐 하러.*

“재빠르군, 아나.”

“넌 둔해졌고. 내가 엄호할 테니 앞에 있는 놈들이나 신경 써.”

소파에서 두 형체가 일어나 이동했고, 그중 하나는 잭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안 돼!*

위치를 노출하기는 정말 싫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소총에 기절탄을 장전한 아나는 사격을 시작해 탈론 무리의 반을 처치했다. 나머지 돌격병들이 공격 위치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여긴 이제 안전하지 않아. 이동해야겠어.* 아나는 다시 부엌에 있던 여인 쪽으로 향했다. 권총을 집어 든 상태였고, 아이는 보이지 않았다. 방아쇠를 당긴 아나는 이번에는 카운터 위에 있던 와인 병을 맞혔다. 권총을 든 여인은 깜짝 놀라 아나를 올려다봤다. 금발에 선해 보이는 인상. 과거로 돌아간 느낌이었다.

“미렘베.” 아나는 숨을 내뿔었다.

말도 안 돼!

조금 늙긴 했지만, 그 실루엣, 흔들림 없이 소총을 파지한 자세. 틀림없었다.

“미렘베야, 잭. 탈론이 미렘베를 노리고 있어.”

아나가 새로운 위치를 물색하는 사이 들려오는 소리는 잭의 숨소리뿐이었다. 좋은 위치는 좀처럼 찾기 힘들었다. 덩불에서 돌격병들이 튀어나왔고, 두 명은 지붕에서 하늘로 뛰어올랐다. 미렘베는 부엌에서 벗어나 계단을 올라갔고, 아나는 일어나 어깨에 소총을 메었다.

“여기 20명 정도 있어.” 아나가 재장전하는 동안 잭이 말했다. 아나와 잭의 방식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계속됐지만 할 수 있는 건 하나뿐이었다.

“잭, 내가 간다. 저지하고 있어. 집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알아냈어. 안에서 보자고!”

벽을 타고 침실 발코니로 올라가는 아나의 머릿속에는 집 안에 있는 아이 걱정뿐이었다. 미렘베의 아이 일 텐데. 탈론 돌격병 하나가 아나를 발견하고 조준했고, 아나는 돌격병보다 레이저 불빛을 먼저 발견했다. 한 손에 소총을 들고 레이저 불빛이 나오는 위치로 조준 사격한 후, 아나는 *털썩* 쓰러지는 소리를 뒤로하고 침실 창을 깬다.

“이렇게 네 생사를 알게 되네?” 아나가 침실로 휙 들어오자 미렘베가 말했다. 침실 가구들도 건물처럼 세련되었고 현대적이었지만, 잘 배치되어 탁 트인 느낌을 주었다. 아나는 주위를 둘러보며 미렘베가 무기를 숨길 만한 공간을 모두 세어보았다.

“죽었으면 했어?” 아나는 아이를 찾다 반문했다. ‘아이는 안전해?’ 이번에는 소리 없이 입 모양만으로.

미렘베는 고개를 끄덕이고 소리 없이 답했다. ‘대피 공간에.’ 아나에게 손가락 세 개를 들어 보인 그녀는 불박이 욕실 문을 가리켰다. 아나는 소총을 들고 왼편에 있는 옷장을 바라보았다.

“진입 완료.” 아나의 귓전에 잡음과 함께 숨을 헐떡이는 잭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상층 확보 중.” 아래 층에서 들려오는 총소리는 잭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음을 알렸다.

“크웨쿠, 도와주러 오신 분들에게 인사하렴.”

소년은 책을 올려다 본 후 아나를 바라보았다. “엄마 친구인 영웅들이에요?” 잠시 생각하던 아이가 물었다.

“준비 됐어?” 아나가 속삭였다. 욕실에서 돌격병 세 명이 튀어나오는 순간 아나는 총구를 들어올렸고 미렘베는 자세를 고쳤다. 생각하는 게 비슷하다니까. 미렘베와 아나는 엄폐물 뒤에서 욕실을 확보하고 복도로 이동했다. 한 무리의 돌격병들이 계단을 오르는 모습이 보였다.

집중. 미렘베는 아나가 폴란드에서 ‘사망’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았던 사람들 중 하나였다. 복도 의자 우측에 세 발. 미렘베의 남편은 암 투병 중이었다. 아나는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온 미렘베가 잘 지내는지, 미렘베뿐 아니라 다들 잘 지내는지 궁금해하곤 했다. 키미코의 둘째 딸이 대수학 과목에서 낙제하진 않았는지, 싱의 어머니가 아직도 환상적으로 바삭한 바카르카니를 만드는지.

미렘베는 팔꿈치로 아나를 쿡 찌르고는 너무 가까이 접근한 돌격병 하나를 처치했다. 숨 쉬고. 둘은 복도에 있는 적을 처리하며 이동해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난간에 책이 기대 서 있었다.

아나는 책에게서 눈을 떼 미렘베를 바라보았고, 이명이 멎었다. 셋은 조용히 폭발 규모를 살펴보았다. “이사 또 해야겠네.” 미렘베는 계단을 오르며 말했다. “금방 돌아올게.”

돌아온 미렘베의 품에는 공룡 담요를 두른 채 머리에는 홀로그램 헤드셋을 쓴 남자가 안겨 있었다. 미렘베는 침착한 표정이었지만, 아나의 눈은 아이를 안은 긴장된 손가락을 놓치지 않았다. 너무도 익숙한 두려움으로 긴장된 손가락을. 미렘베는 아이를 내려놓고 헤드셋을 벗겼다.

“크웨쿠, 도와주러 오신 분들에게 인사하렴.”

소년은 책을 올려다 본 후 아나를 바라보았다. “엄마 친구인 영웅들이에요?” 잠시 생각하던 아이가 물었다.

“왜 오버워치에 가셔야 해요, 엄마? 문제 생긴 거 아니죠?” 6살 파리하는 자신의 키 정도 높은 벽 위에서 까치발로 걷고 있었고, 그런 딸을 따라 아나는 걸었다. 파리하는 항상 여러 일을 동시에 했다. 먹으면서 뛰고,

책 읽으면서 노래하고, 피루엣을 연습하며 산수 문제를 풀고, 공중 줄타기를 하는 척하며 복잡한 질문을 하고. 아나는 파리하의 머리를 묶어주고 싶었지만 딸의 공중 줄타기 시능을 방해하고 싶지는 않았다.

“아니, 팀에서 엄마를 부른 거야.”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는데요?” 몸의 중심이 흐트러진 파리하가 엄마에게 손을 뻗으며 물었다.

아나는 딸의 손을 꼭 잡은 채 놓지 않았다.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엄마는 작은 손을 꼭 쥐었다. “널 안전하게 해주는 일.”

“옴닉에게서 보호하는 거요?”

그렇게 단순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전쟁을 끝내려면 얼마나 오래 걸릴까? 그동안 예기치 않은 위험이 얼마나 기다리고 있을까? 오버워치가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해도 이 세상은 쉽게 회복되지 않을 테고, 결국 세계의 치안을 담당하게 될 운명. 당시에 아나는 짐작도 못하고 있었지만 오버워치는 평화 유지군이 될 운명이었던 것이다.

“그래. 그래서 엄마는 멀리까지 가야 해.”

파리하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본 아나는 딸이 답하기 힘든 질문을 던질 것을 알았다.

“위험한 곳이에요?”

이런 질문은 아무도 대놓고 하지 않았다. 샘조차도. 누구나 위험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들고 나니 아나는 멈칫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 가끔은 무서운 일에 정면으로 맞서야 하니까.”

파리하는 걸음을 멈추고 벽에서 뛰어내렸다.

“그럼... 엄마는 영웅이 되는 거예요?”

아나는 영웅이라는 단어에 놀랐다. 이집트 최고의 저격수이자 숙련된 군인이었던 아나에게, 모든 일은 그저 해야 하는 일이었다. 스스로가 영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당국에서 소식을 듣고 현장을 청소하고 경호를 붙이기 위해 인원을 파견했다. 잭이 안전 지역으로 인도하는 동안 크웨쿠는 엄마의 품에서 잠들어 있었다. 때때로 따스한 바람이 부는 밤이었지만, 아나는 재킷을 벗어 아이에게 덮어 주었다. 셋은 한 블록 떨어진 곳에 있던 버려진 슈퍼마켓에 들어가 실 준비를 했다. 미렘베에게는 휴식과 차 한 잔이 꼭 필요해 보였다.

“소집 요청을 받은 날이 아직도 기억나.” 미렘베가 말했다. “크웨쿠가 게임을 하다가 뭘 보여준다고 했는데, 윈스턴이 보낸 메시지를 확인하느라 못 봤어.” 미렘베는 밤하늘 멀리 취리히 여기저기에 발생한 화재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탈론이 아직도 우릴 노린다니 믿을 수가 없어. 널 섹터가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도 말이야.”

“변한 게 없는 것 같군.” 잭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지도 모르지. 하지만 나도 그리 변한 건 없어. 때론 소집이 필요했다고도 생각해. 특히 지금처럼 내 아이를 위해 더 나은,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느껴질 때는.” 미렘베는 품에 있는 크웨쿠를 좀

“곧 다시 보는 거야?” 미렘베는 아나의 표정에서 뭔가를 읽으려 했다. 희망, 아니면 확신을. “또 사망하는 건 아니지?”

“누구? 우리가?” 잭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우리 같은 노병이? 그럴 리 없지.”

더 당겨 안았다. “그래서 탈론이 날 노린 게 아닐까 해. 내가 공감했을 정도면 윈스턴의 메시지에 답하는 사람이 또 있을 테니까.”

“소집에 응할 생각이야?” 아나가 물었다.

미렘베는 한숨을 내쉬었다. “애 아버지가 죽고 나니... 복잡해졌어. 소집 메시지가 퍼진 뒤에 이사회에서는 극성스럽게 전원한테 연락을 돌리더라. 키미코도 그랬어, 비비안도. 하지만...”

잭이 목을 가다듬었다.

“비비안은 토론토에 있다고 들었는데.” 아나가 잭을 무시하고 끼어들었다.

미렘베는 둘에게 미소 지었다. “비비안이 다시 활약하는 걸 보니 나한테도 다시 활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더라. 전쟁이 끝나면 규제를 좀 풀어주겠지.” 미렘베의 한숨이 이어졌다. “머지않아 우리 모두 지브롤터로 돌아갈지도 모를 일이잖아? 부산 영상을 보다가 파리하를 봤어. 분명 너도...”

미렘베의 휴대폰에 경보음이 울렸다.

아나가 화면을 흘끔 쳐다봤다. “근처에 있대?”

“몇 블록 떨어져 있대. 너희 둘이 도망칠 시간은 충분해. 곧 다시 보는 거야?” 미렘베는 아나의 표정에서 뭔가를 읽으려 했다. 희망, 아니면 확신을. “또 사망하는 건 아니지?”

“누구? 우리가?” 잭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우리 같은 노병이? 그럴 리 없지.”

아나는 작별의 의미로 미렘베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잭이 수행하는 임무와 정보원에 대해서는 너무 복잡하니 말을 꺼낼 엄두가 나지 않았다. 유능한 정보 요원이었던 미렘베는 잭과 아나가 오버워치로 복귀한 게 틀림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 같았다. 그래서 탈론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개입한 뒤 그녀를 구한 게 틀림없다고.

“윈스턴에게 안부 전해줘 그리고...” 잠시 머뭇거리던 미렘베는 결심한 듯 말을 이었다. “윈스턴이 우리 전부를 UN에서 빼내줄 수 있다면... 아마 지브롤터에서 동료들을 많이 보게 될 듯해.”

아나가 미소를 지었다. “가면서 근처 청소도 하고 갈게.”

뒤에 있는 문을 조심스럽게 닫고, 다시 어둠 속에서 잭을 따라가다가 아나는 발을 멈췄다. 아직 숨기는 정보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알 만큼 오래 알고 지냈다. 둘은 몇 분 동안 말 없이 걸었다.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을 거리에게 추궁하려는 생각이었다.

“어서 말해, 잭. 뭔가 숨기는 게 있지?”

잭이 숨긴 것을 털어놓을지 갈등하는 동안 아나는 잠자코 지켜보았다.

“나를 무슨 머저리 용병 취급하지는 마. 같이 일한 세월이 얼마인데.”

잭은 호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들어 보였다. 데이터 드라이브였다.

이거 좋지 않은데.

“정보원이 주소만 준 게 아니야. 이 드라이브를 쓰면 탈론 프로젝트 파일에 백도어로 접근할 수 있지. 임무 브리핑, 일정, 명단까지... 정보원이 준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별할 방법이 없어서 증거를 달라고 한 건데, 탈론 일정에 제일 먼저 뜬 이름이 미렘베였어... 미렘베가 증거였던 거야.”

잭은 아나의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탈론은 오버워치 요원들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위치를 거의 전부 가지고 있어... 지브롤터 감시 기지에 침투했을 때부터. 2년째 공격을 이어가고 있지.”

아나는 쓴 입맛을 다셨다. 그런 소문은 이미 들었고, 카이로에서 캐서디를 만났을 때도 말해주었던 내용이었다.

“*이 드라이브*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렇다는 건 내 정보원이 탈론의 계획을 알고 있다는 뜻이지.”

아나는 그 다음에 이어진 목소리가 자신의 목소리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아주 멀리에서 들려오는 느낌이었다. “농담이지?”

잭이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다. “아나?”

“잭. 난 우리 동료들 얘기를 하고 있어. 수년간 죽고, 매복당하고, 암살당한 동료들 말이야.” 아나는 잭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다음은 누구야? 윈스턴이 새로 팀을 꾸렸으니... 윈스턴에게 말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잭은 아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개를 가로저었다. “대규모 작전에 돌입하게 되면 의심을 받게 돼. 내 정보원은...”

“오늘 우리가 거기 안 갔으면? 돌격병을 서른 여덟이나 보냈다고. 미렘베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야. 아들도...” 아나는 목에서부터 솟아난 열기가 뺨까지 올라오는 것을 느끼고는 말을 멈추었다.

**“잭. 우리는 이미 많은 걸 잃었어.
하지만 이 사람들. 내가 보호하겠다고
맹세한 사람들마저?”**

**아나는 데이터 드라이브를 돌려주고
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우린 살아
있어, 잭. 유령이 아니라고.**

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드라이브 넘겨.” 잭은 드라이브를 순순히 아나에게 넘겼고, 아나는 데이터를 다운로드했다. 아나는 익숙한 얼굴과 이름 목록이 붉은색으로 칠해진 것을 보고 소름이 돋았다.

“잭. 우리는 이미 많은 걸 잃었어. 하지만 이 사람들. 내가 보호하겠다고 맹세한 사람들마저?”

아나는 데이터 드라이브를 돌려주고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우린 살아 있어, 잭. 유령이 아니라고. 왜 아직도 과거와 싸우려는 거야?”

잭은 멍하니 듣고 있다가 잠시 정신을 차리고 아나를 마주보았다. 입을 열어 대답을 하긴 했지만 속삭임에 가까웠다. “넌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 했잖아. 샘을 위해서. 파리하를 위해서. 고생도 많이 했잖아. 나 때문에.” 잭은 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다. “내게는 이제 과거가 전부야.”

“제발 조심 좀 해, 잭.” 아나의 간청에는 말하지 못한 말들이 많이 섞여 있었다. 그럼에도 아나는 그가 알아들었으리라 믿었다.

“나한테 소중한 사람들은 내가 알아서 지킬게. 이 목록을 만든 자들... 오버워치를 끝장내려던 자들을 찾을 때까지는 쉴 수 없어.”

아나의 가슴에 슬픔이 차올랐다. 과거 어려운 임무에서 잭과 따로 움직이게 되더라도 다시 볼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녀였지만, 이번에는 확신이 들지 않았다. 잭도 알고 있었다. 둘은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잘 지내고.”

잭은 고개만 끄덕였다.

아나는 잿이 밤 너머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봤다.

“잘 가, 친구.” 파리하를 위해 세상을 구했다고 했던 말이 틀렸음을, 아나는 깨달았다. 세상은 그저 누가 항상 구해야 하는 것이다. ‘평화는 이룰 수 있다.’ 이것이 오버워치가 품었던 가장 큰 환상이었다. 항상 누군가는 질서를 위협하고, 선량한 사람을 위협한다. 이게 진실이다.

이 진실을 파리하는 어릴 때 이미 알고 있었다. 이제 파리하는 *아나*는 물론 다른 이들이 우러러보는 영웅이 되었다. 어둠 속에 홀로 서서 밤하늘에 보이는 불꽃을 보며 희망이 없다는 느낌을 받은 아나는 잠시 딸과 가까워진 것처럼 느꼈다. 모녀 간에 평화를 이루겠다는 집념, 그리고 소중한 이들을 지키겠다는 목표는 같았다. 딸 옆에서 싸우지 못한다면, 아나는 멀리서라도 언제나 싸울 것이다. 아나는 탈론의 목록에 오른 사람들을 지켜낼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빛을 잃어가는 이 세상에서 아나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의일 테니.